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국민의 태도\*

권수현 | 고려대학교

본 연구는 남한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자료를 이용해 개인들이 북한이탈주민(탈북자) 수용 여부와 탈북자들에 대한 친근감과 관련해 어떤 태도를 갖고 있으며, 이러한 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10명 중 한 명만이 탈북자 수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반면, 3명 중 한 명만이 탈북자를 친근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분석결과, 경제적 요인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반면, 문화적 요인인 국가정체성과 정치적 요인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 인구통계학적 요인인 성별 등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남한사람들의 탈북자 수용과 친근감 태도 간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요인이 민족정체성이며, 이 변수가 탈북자와 이민자에 남한사람들의 태도차이를 결정하는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사회가 사회통합과 민족통일을 이뤄야 하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탈북자 정책은 민족적 관점과 다문화주의적 관점을 통합해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탈북자와 이민자에 대한 남한사람들의 개방성과 포용성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주제어:** 북한이탈주민(탈북자), 개인태도, 민족정체성, 탈북자 정책

## I. 문제제기

지금까지 북한이탈주민(이하 '탈북자') 연구는 주로 탈북자 입장에서 현상과 문제를 분석·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왔다. 즉, 탈북자들이 남한사회에 적응하는 데 있어 직면하는 문제들(신체적·심리적·경제적 문제)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지방자치 차원의 지원체계 및 제도, 민간 또는 국제적 차원의 역할 등에 관한 논의가 주를

---

\*논문에 대해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신 하상웅 선생님(CUNY Brooklyn College)과 심사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루고 있다(윤인진 2000a; 윤여상 2001; 정광호 외 2001; 김현철 2004; 김미령 2006; 박광득 2006; 박현식 2006; 오수열·김주삼 2006; 박정란·강동환 2008; 장복희 2010).

그런데 탈북자들이 겪는 다양한 문제들의 해결은 탈북자들의 입장만을 고려해서 이뤄질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즉 탈북자들의 입장 못지않게 남한사회에 살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태도, 의견 등도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 특히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와 정당은 선거를 통한 (재)집권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남한국민 대다수가 탈북자들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갖고 있을 경우에는 탈북자들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에서 탈북자 연구 또한 탈북자들의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이들을 수용하는 남한사회 내 다양한 개개인들의 입장에서도 진행될 필요가 있다.

탈북자는 남한사회에 입국한 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하는 순간부터 대한민국 국민과 똑같은 지위(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그러나 60여 년 이상을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남한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이하 '남한사람')과 탈북자들 간에는 이질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이질성은 탈북자 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표면화되고 사회적 갈등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남한사회가 외국으로 이민자를 보내는 송출국에서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는 유입국으로 변화하고(송유진 2008, 1-2)<sup>1)</sup> 있는 추세를 고려할 때, 향후 남한사회에 남한사람들과 탈북자들, 그리고 이민자들 간에 다양한 문제와 갈등이 복잡하게 얽혀 나타날 수 있다.<sup>2)</sup> 따라서 이러한 가능성이 현실화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라도 우선적으로 탈북자들과 남한사람들이 서로에 대해 어떤 인식과 태도를 갖고 있는지를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본 연구는 남한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자료를 이용해 탈북자들에 대한 남한사람들의 태도와 이러한 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통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탈북자들에 대한 태도가 이민자들에 대한 태도와

1) 단기·장기체류 외국인을 합한 체류 외국인 수는 2008년 8월에 100만을 넘어섰고(박경태 2008, 295), 2009년 현재 외국인 수(등록외국인: 870,363명 + 장·단기 불법체류외국인: 177,955명)는 남한 전체 인구의 약 2%에 달하고 있다. 서구와 비교하면 낮은 수치이지만 최근 들어 동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남한, 일본, 대만이 이민자들의 주요 유입국으로 부상하고 있다(송유진 2008, 2).

2) 다문화사회와 관련한 많은 정책과제 및 연구들은 남한의 다인종·다민족화 현상이 선진국의 경험을 압축적으로 따라가고 있음을 고려할 때, 관련 사회문제나 쟁점들이 남한사회에서 보다 다각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를 표명해왔다(이명진 외 2010, 65).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를 국내·외 연구결과들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살펴본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우선, 개인태도와 관련된 이론적 논의와 경험적 연구 결과들을 살펴본다. 다음으로는 남한사람들이 탈북자들에 대해 갖고 있는 개인태도의 경향과 이러한 경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그러한 결과를 국내·외 이민자에 대한 개인태도 연구와 비교해본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이 갖는 의의와 한계를 지적하면 마무리한다.

## II. 이론적 논의

### 1. 탈북자 정의: 난민 대 이민자

이론적·경험적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탈북자와 이민자(이주노동자 포함)를 동일한 집단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가이다. 우선적으로 인종적·민족적 측면에서 탈북자는 남한사람과 같은 인종적·민족적 뿌리를 갖고 있는 반면, 이민자는 아니라는 점에서 탈북자와 이민자는 다르다.

그러나 다수와 소수의 관점에서 탈북자는 남한사회 내에서 수적으로 절대적 소수집단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권력과 부, 지위 등에 있어서도 다수의 남한국민과 비교해 열등한 지위에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도 소수집단(minority group)이다. 탈북자들의 취업과 직업적응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수의 탈북자들이 무직상태에 있거나 단순 노무직이나 서비스직에 종사하고 있으며 정규직보다는 임시직과 계약직 등 비정규직으로 채용되는 등 불안정한 직업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윤인진 2000b, 247).<sup>3)</sup> 또한 이주민들과 마찬가지로 탈북자들 역시 남한국민들의 무관심과 냉대, 멸시적·적대적 태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조용관 2004, 230). 이러한 점에서 탈북자들은 이

3) 2000년에 실시된 설문조사에 응답한 탈북자 중 70.9%가 정규직에 종사하고 있고 나머지 29.1%가 단기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등 비정규직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윤인진 2000b, 248). 5년 후 조사에서는 정규직이 38.5%이고 비정규직(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이 61.5%인 것으로 나타났다(백경민 2007, 237-238). 한편, 2000년에 입국한 200명 중 106명을 7년간 추적연구를 한 결과, 탈북자의 평균 소득수준이 유의미하게 증가했고 거주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저소득자 비율이 현저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시은 외 2008, 142).

〈표 1〉 탈북자의 탈북동기

탈북동기	빈도(명)	비율(%)
가난	81	37.9
돈 벌기	36	16.8
남한사회에 대한 동경	20	9.3
직장문제	4	1.9
정치적 박해(사상적 문제)	41	19.2
가족문제	6	2.8
가족 따라서 그냥 왔음	20	9.3
기타	6	2.8
합계	214	100.0

출처: 장준오(2007)의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 실태 조사” 설문자료 활용.

민자들과 함께 남한사회 내 소수집단으로 묶을 수 있다.

한편, 국제적 지위 측면에서 이민자는 “더 나은 삶을 찾기 위해 자신의 거주지나 국가를 떠난 사람, 즉 ‘경제적 이민자(economic migrant)’”로 난민(refugee)과 구분된다. 반면, 탈북자는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sup>4)</sup>에서 정의하는 난민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위임난민(mandate refugees)에 해당한다. 이민자는 언제든지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 탈북자는 그렇지 못하다는 점에서 이민자보다 난민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남한으로 입국하는 탈북자들의 탈북동기를 살펴보면, 정치·사상적 요인보다는 이민자들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요인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2006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탈북자 2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자료를 살펴보면, 경제적 이유(가난, 돈 벌기)가 탈북동기의 54.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표 1〉 참조)<sup>5)</sup> 이러한 경향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종합적으로 비록 탈북자가 국내·외 법적 지위와 인종적·민족적 뿌리 등에 있어 이민자

4) “위임난민(mandate refugee)은 자신의 조국 또는 제3국에 살고 있는 개인이 유엔난민기구(UNHCR: the Office of the United Nation High Commissioner of Refugee)로부터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이다. UNHCR은 UNHCR의 규정과 판례에 따라 난민지위를 인정하고 있다(Bianchini 2010, 368).”

5) 정부 또한 탈북자 수의 증가요인을 “보다 나은 삶을 찾으려는” 경제적 욕구로 해석하고 있다.

와 다르나 탈북자의 탈북요인 중 경제적 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 탈북자들이 남한사회 내 실질적인 정치·경제·사회적 지위와 권력 등에 있어 이민자와 마찬가지로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도 소수집단에 속한다는 점에서 탈북자는 이민자와 동일한 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본 연구는 이러한 전제 하에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 2. 개인태도 결정요인

이민(자)에 대한 개인태도(individual attitudes)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주로 경제적 측면과 문화적 측면(또는 비경제적 측면)으로 나뉘어 설명된다. 경제적 측면을 강조하는 학자들은 노동경제이론을 바탕으로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는 국가의 개인들이 갖고 있는 기술의 차이가 이민자들에 대한 태도 차이를 가져온다고 주장한다(Goldin 1994; Timmer and Williamson 1998; Scheve and Slaughter 2001; Mayda 2006). 기술수준이 낮은 집단일수록 이민자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취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이민자 중 대부분이 비숙련노동자이며 이들의 입국이 증가할수록 하위계층에 속하는 유입국 국민들은 이민자들과 비슷한 업종의 노동시장에서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Scheve and Slaughter 2001; Esses et al. 2001; Semyonov et al. 2008). 비슷한 맥락에서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은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보다 이민자에 대한 선호가 더 동정적(sympathetic)인 것으로 나타난다(Hainmueller and Hiscox 2007; Chandler and Tsai 2001; Scheve and Slaughter 2001; Coenders and Scheepers 2003).<sup>6)</sup> 한편, 파치니와 마이다는 경제적 요인을 강조하면서도 노동시장 내에서 경쟁으로 인한 임금하락보다는 정부가 이민자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요구하는 세금이 이민자에 대한 개인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Facchini and Mayda 2006; 송유진 2008).

경제적 요인 못지않게 강조되는 또 다른 요인은 문화적 요인이다. 문화적 측면을 강

6) 그런데 노동시장모델에 기반한 분석은 노동자들만을 분석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노동시장 밖에 있는 다른 집단, 특히 실업자가 아닌 집단(연급수령자 등)의 선호를 나타내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O'Rourke and Sinnott 2006).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 노동집단과 비노동집단으로 나뉜 경제적 요인의 영향력 분석을 실시한 결과, 노동집단에 속하는 집단에서는 교육수준 또는 기술수준이 이민자에 대한 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인 반면, 비노동집단에서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Mayda 2006; O'Rourke and Sinnott 2006).

조하는 학자들은 민족정체성(national identity, nationalism or chauvinism)<sup>7)</sup> 변수를 사용해 민족정체성이 이민자에 대한 개인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 있다. 이들 연구결과들은 민족정체성이 강한 사람일수록 이민자에 대한 선호가 부정적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De Figueredo and Elkins 2003; O'Rourke and Sinnott 2006; Rajjman et al. 2008). 한편, 일부 학자들은 민족정체성을 분석적 차원에서 두 가지 유형, 즉 '시민적/서구적(civic/Western)' 정체성과 '인종적/아시아적(ethnic/Eastern)' 정체성 유형으로 구분해 연구를 진행하기도 한다(O'Rourke and Sinnott 2006; Ceobanu and Escandell 2010; 장승진 2010).<sup>8)</sup> 두 가지 유형을 모두 고려할 경우에 민주적 이상과 정치적 자발성에 기반한 감정과 배타적인 애국적 감정이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Ceobanu and Escandell 2010).

이외에 성(gender), 연령(age), 종교(religion), 결혼(marriage), 거주지(urban or rural) 등 인구통계학적(demographic) 변수들이 이민자에 대한 개인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함께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은 일반적으로 변수들의 영향력이 일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Ceobanu and Escandell 2010).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이민자에 대한 개인태도 결정요인 분석은 경제적 요인과 문화적 요인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정치적 요인에 대해서는 크게 주목하고 있지 않다. 물론, 정치적 요인과 관련된 변수가 포함되기는 하나 문화적 또는 비경제적 영향력의 한 변수로 분류되고, 분석결과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정치적 영향력이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 정치적 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는 변수는 개인의 정치적 이념(political ideology)이다. 정치적 이념 변수는 보수적인 사람일수록 이민자의 유입을 반대하고, 이민을 억제하는 정책을 선호하고, 외국인에게 내국인과 똑같은 권리를 주는 것에 반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Espenshade and Hempstead 1996; Citrin et al. 1997; Chandler and Tsai 2001; Hainmueller and Hiscox 2007; Semyonov et al. 2008; Gorodzeisky and Semyonov 2009). 일부 학자들은 당파성(party identification)도 변수로 포함시켰는

7) 장승진(2010)은 'national identity'를 '국가정체성'으로 번역해 사용했는데 국내 학계에서 'nation'은 오래 전부터 '민족'으로 번역돼 사용되어 왔고, 민족정체성과 국가정체성이 개념적으로 구분될 필요가 있다는 점(양승태 2006)에서 본 연구에서는 national identity를 민족정체성으로 번역해 사용한다.

8) 시민적 정체성은 국가를 법적·제도적 공동체로 이해하며 특정 공동체의 소속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개인의 자발적 의지가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다. 반면, 인종적 정체성은 공통의 혈연관계를 중시하며 특정 공동체의 소속 여부는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는 출생에 의해 운명적으로 결정된다(장승진 2010, 107).

태 당파성은 일반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Citrin et al. 1997; Scheve and Slaughter 2001).

기존 연구들에서 정치적 요인이 상대적으로 간과되는 것과 관련해 이들 연구들이 서구 선진국들을 주요 분석단위로 삼고 있다는 점을 다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분석단위에 포함된 서구 국가들은 분석단위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이민자의 비율이 높다. 따라서 이들 국가에서는 이미 이민자들과 유입국 국민들이 노동시장에서 함께 경쟁하는 구도가 형성되어 있다. 그런데 이민자의 비율이 선진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거나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는 유입국으로 새롭게 진입하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에는 선진국들과 달리 노동시장 내에서 이민자들과 유입국 국민들 간 경쟁이 심하지 않거나 선진국과는 다른 경쟁구도가 형성되어 있을 수 있다. 다시 말해, 노동시장에서 이민자들이 차지하는 일의 영역과 유입국 국민들이 차지하는 일의 영역이 크게 겹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유입국 국민들이 이민자에 대해 갖는 태도는 경제적 요인보다는 정치적 요인, 즉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나 이민자에 대한 정부정책에 대한 평가 등이 더 중요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만약 이민자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이민(자)에 대한 개인의 태도가 다르다면, 이러한 개인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또한 다르다고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과 같이 이민자 유입국으로 새로 등장하고 있는 국가에서 개인들의 이민자에 대해 갖는 태도 연구는 다양한 변수의 영향력뿐만 아니라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들의 차이와 변화 여부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서구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서구에서는 이민자에 대한 지위, 정책, 집행 등에 있어 국가들 간에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허용하는 것보다는 적은 수의 이민자를 받아들이고 이민자들에 대해 더 많은 제한을 가하기를 원하는 개인들이 점점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Simon and Lynch 1999). 한편, 이러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경제적 요인, 문화적 요인, 정치적 요인들이 상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기술·교육·임금 수준 등이 낮고, 국가에 대한 애착이 강하며 이념적으로 보수적인 사람일수록 이민(자)의 유입 증가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 반면, 반대인 경우에는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서구의 이론적·경험적 논의를 한국의 탈북자 사례에 적용해 분석하고 그 유의미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 3. 탈북자 연구동향

탈북자 연구에서 탈북자를 받아들이는 개인들에 초점을 맞추고 연구한 논문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탈북자들에 대한 남한사람들의 개인태도를 연구한 논문으로는 김영수(1998), 정기선(1999), 전우택 외(2000), 홍순혜 외(2003), 양계민·정진경(2005) 등이 있다. 한편, 탈북자보다는 국가로서의 북한과 북한에 살고 있는 북한주민에 대한 남한사람들의 개인태도를 연구한 논문으로는 정기선(1998), 전우영·이훈구(1998), 전우영(1998; 1999), 이수정(1999), 전우영·조은경(2000), 김혜숙(2000, 2002), 윤옥경(2009) 등이 있으며, 탈북자를 외국인의 한 부류로 포함해 이들에 대한 개인태도를 조사한 연구로 이기춘 외(2000), 이명진 외(2010) 등이 있다.

연구결과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우선 탈북자에 대한 정서나 태도 등은 탈북자와의 접촉 경험 유무뿐만 아니라 접촉한 경우에도 탈북자와 맺는 관계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탈북자와 접촉하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 연민의 정서와 함께 부정적 정서를 갖고 있는 것(김영수 1998; 정기선 1999; 양계민·정진경 2005)으로 나타난다. 한편, 탈북자와 접촉한 사람들 중에서 신변보호담당관이나 보호담당형사의 경우는 탈북자에 대한 부정적 정서(전우택 외 2000; 홍순혜 외 2003; 양계민·정진경 2005)를, 대안학교교사는 그 반대인 것으로 나타난다(양계민·정진경 2005).

다음으로 북한·북한주민·탈북자 등에 대한 태도나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관련해서는 통일의 경제적·사회적 효과에 대한 기대, 북한사람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과 이질감에 대한 인식 정도(정기선 1998), 북한에 대한 감정이입 정도(전우영·조은경 2000), 이념적 정향(김혜숙 2002), 성, 연령, 직업, 교육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연령이 많고 교육수준이 높고(이명진 외 2010) 개방적일수록(김혜숙 2002) 탈북자나 북한주민에 대한 태도가 우호적이고, 여성들이 남성보다 덜 긍정적인 대북 감정·신념·태도 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김혜숙 2002).

이들 연구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은 신변보호담당관(전우택 외 2000; 홍순혜 외 2003), 대학생(김영수 1998; 전우영·이훈구 1998; 전우영 1998; 김혜숙 2000, 2002; 전우영·조은경 2000), 보호담당형사와 대안학교교사(양계민·정진경 2005) 등 특정그룹의 태도를 주로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감과 이질감(정기선 1998), 불확실성 회피경향(양계민·정진경 2005), 평가성·권력성·활동성(이명진 외 2010) 등 개인의 심리적·감



정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연구의 특징이자 한계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우선은 특정그룹이 아닌, 대표성(representativeness)을 갖고 있는 설문조사를 사용해 탈북자에 대한 남한사람들 전체의 일반적인 태도 경향을 살펴본다. 그리고 응답자 개인의 심리적·감정적 성향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경제적·정치적·문화적 측면에 초점을 맞춰 이들 요인들이 탈북자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다.<sup>9)</sup> 이 두 가지 점이 기존연구와의 차이점이자 본 연구의 의의라고 할 수 있다.

### III. 통계분석과 결과

#### 1. 데이터

본 연구는 2007년에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에서 실시한 「통일의식조사」 중 탈북자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문항 일부를 발췌하여 분석에 활용했다. 조사는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의 만 19세 이상 65세 이하 성인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표본은 지역별·연령별·성별로 층화하여 비례 할당하는 다단층화무작위추출법(multi-stage stratified random sampling)에 의거해 추출되었다. 조사는 1대1 개별면접조사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자료수집기간은 2007년 7월 4일부터 20일까지이다.

서구의 연구들은 이민(자)에 대한 개인태도를 살펴보기 위해 이민자 증가 또는 감소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는 질문을 종속변수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탈북자 수용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 즉 “한국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탈북자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sup>10)</sup>라는 질문을 종속변수로 선택했다. 그런데 탈북자는 다른 국가 출신의 외국인과 민족적으로 다른 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탈북자에 대한 정책적 태도와 감정적(또는 정서적) 태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9) 본 연구와 비슷한 이론적 배경 하에서 이민자에 대한 태도를 분석한 국내연구로는 송유진(2008)과 장승진(2010)의 연구가 있다. 이후 탈북자에 대한 남한국민의 태도가 이민자에 대한 태도와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하는 데 있어 장승진(2010)의 연구를 주요 비교준거로 참고하고자 한다.

10) 이 문항에 대한 응답은 3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① 더 이상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② 원하는 사람 중에서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③ 원하는 사람들은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

탈북자에 대한 남한국민 개인들의 감정적 태도가 정책적 태도와 같은지 다른지, 두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같은지 다른지를 살펴보기 위해 감정적 태도와 관련된 변수(“한국에 거주하는 탈북자가 얼마나 친근하게 느껴지십니까?”<sup>11)</sup>)를 종속변수로 추가했다.

본 연구는 경제적·정치적·문화적 요인이 탈북자에 대한 개인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지에 관심이 있다. 따라서 경제적 독립변수로는 직업, 소득, 교육, 경제상황에 대한 만족도를, 문화적 독립변수로는 민족정체성을, 정치적 독립변수로는 정치적 성향과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선택했다. 이와 함께 성별, 연령, 결혼 여부, 종교, 지역 등을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포함시켰다.

경제적 영향력을 평가하기 위한 변수는 학자들에 따라 약간씩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데 주로 고용형태(occupational classification), 소득(personal or house income), 교육수준(educational level) 등이 이용되고 있다(Ceobanu and Escandell 2010). 측정방법은 학자들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직업은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에서 정한 국제직업표준(ISCO: 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에 따라, 교육수준은 교육연수(year of education)에 따라 분류해 사용하고 있다(Scheve and Slaughter 2001; Mayda 2006; O'Rourke and Sinnott 2006).

그런데 한국의 경우는 서구와 달리 자영업(self-employment) 비중이 높고<sup>12)</sup> 자영업의 기술수준(skill level)을 명확하게 측정할 수 없는 문제가 존재한다. 따라서 국제직업표준 규정에 따라 직업수준을 분류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본 연구에서는 취업자(employment),<sup>13)</sup> 자영업자(self-employment), 비경제활동인구(non-labor force: 가정주부, 학생, 무직자<sup>14)</sup> 포함) 등 세 그룹으로 나누고 자영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에 속하는 그룹의 영향력을 살펴보

- 11) 이 문항에 대한 응답은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① 전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② 별로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③ 다소 친근하게 느껴진다, ④ 매우 친근하게 느껴진다.
- 12)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09년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4.3%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에는 OECD 평균인 13.6%보다 1.86배 높은 25.3%인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0).
- 13) 취업자의 직업은 농업/수산업/축산업, 판매/서비스직, 기능/숙련공, 일반작업직, 사무/기술직, 경영/관리직, 전문/자유직 등이며, 군인/경찰은 직업의 기술수준을 파악할 수 없다는 오로크와 시노트(O'Rourke and Sinnott 2006)의 문제의식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결측값(missing values)으로 처리했다.
- 14)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조사자료에서 무직자(unemployment)는 전체의 3.4%(41명)로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이들의 실직기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비경제활동인구로 포함시켰다.

기 위해 각 변수를 더미변수로 만들었다. 소득은 세금을 공제하기 전 가족의 월평균 가구 소득으로 100만원 단위로 구간척도(interval scale)로 측정되었다. 100만원 이하가 1, 700만원 이상이 7로, 숫자가 높아질수록 소득이 높아지는 것으로 코딩했다. 교육수준은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 재학생 이상(석사 포함)으로 나누고 높은 값일수록 교육수준이 높은 것으로 코딩했다. 객관적인 경제적 영향력 외에 주관적인 경제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설문조사 당시 한국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만족도 항목을 변수로 추가했고 숫자가 높아질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코딩했다(1-4).

문화적 영향력을 설명하는 변수인 민족정체성은 분석적 차원에서 시민적 정체성과 인종적 정체성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설문조사에 두 가지를 명확히 분리할 수 있는 문항이 없는 관계로 인종적 정체성을 의미하는 민족정체성의 영향력만을 살펴본다. 이와 관련한 문항으로 “한국인인 것을 어느 정도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까?”라는 항목을 선택했고 높은 값일수록 응답자의 민족정체성이 높은 것으로 코딩했다(1-4).

정치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우선적으로 개인의 정치적 성향을 선택했고 가장 보수적(1)인 것에서부터 가장 진보적(5)인 순으로 코딩했다. 이와 함께 조사 당시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평가항목도 정치적 요인의 변수로 선택했다. 탈북자에 대한 개인태도와 정부의 대북정책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구체적으로 이뤄진 적은 없으나 탈북자 관련 정책이 대북정책의 하위범주에 포함되고 상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개인의 평가는 탈북자에 대한 개인의 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 역시 숫자가 높을수록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응답자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코딩했다(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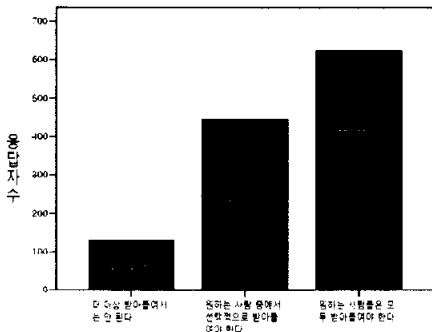
이외에 인구통계학적 변수로 성별, 결혼, 종교, 지역 등을 포함시켰고 각각을 더미변수로 처리했다. 성별은 여성을 1로 남성을 0으로, 결혼은 결혼했음을 1로 미혼·사별·이혼·별거를 0으로, 종교는 종교 있음을 1로 무교를 0으로, 지역은 대도시를 1로, 중소도시와 읍·면을 0으로 코딩했다. 연령은 연속변수(continuous variable)로 코딩했고 세대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20대와 30대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0으로 코딩하고 40대 이상의 연령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1로 코딩했다.

## 2.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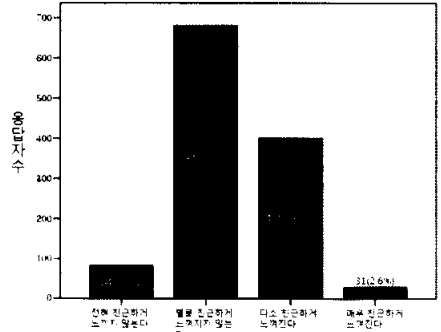
### 1) 탈북자에 대한 개인태도 경향

정책적 태도라 할 수 있는 탈북자 수용과 관련한 응답분포를 살펴보면(〈그림 1〉 참조), 남한사람들의 절반 이상(52%)이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여 이민자들에 대해서와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장승진(2010)의 연구에서는 응답자 중 38.41%가 이민자 수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중도적 입장을 보이고 있고, 현 수준보다 감소해야 한다는 비율(36.12%)이 증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25.46%)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나 네 명 중 한 명 정도가 외국인 이민자 유입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탈북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10.8%로, 남한사람 10명 중 1명 정도만이 탈북자 수용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남한의 개인들은 외국인 이민자에 대해서는 서구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반면, 탈북자에 대해서는 반대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민족(또는 동포)이라는 기준이 탈북자와 이민자에 대한 남한사람들의 태도 차이를 가져오는 중요한 요소일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한편, 심리적 또는 감정적 태도라고 할 수 있는 탈북자들에 대한 친근감 분포를 살펴보면(〈그림 2〉 참조), 탈북자에 대해 친근하지 않다고 느끼는 비율(63.9%)이 친근하다고 느끼는 비율(36.1%) 보다 약 두 배 높게 나왔다. 탈북자 수용에 관한 태도와 달리 남한사람들 중 3명 중 1명 정도만이 탈북자에 대해 친근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민



〈그림 1〉 탈북자 수용



〈그림 2〉 탈북자에 대한 친근감

족이라는 인식이 친근하다는 감정으로 곧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sup>15)</sup> 즉 같은 민족이나 60년 이상 서로 다른 체제와 이념 하에서 살아온 간극이 존재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舊)서독사람들과 달리, 남한사람들이 북한주민을 동포로 느끼는 비율은 오랜 시간 동안 상당히 높게 유지되고 있다. 독일통일 전에 실시된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서독사람들이 동독사람들에게 연민(sympathy)을 느끼거나 이들을 동포(fellow countrymen)로 생각하는 비율이 계속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며,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그 비율이 현저히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Chung and Magle 1992).<sup>16)</sup> 이와 달리, 남한사람들은 1989년 조사에서는 13.4%만이 북한사람들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으며(Chung and Magle 1992, 859), 2005년 조사에서도 조사응답자 중 약 80%가 북한주민을 같은 동포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강원택 2005).

이를 고려할 때, 탈북자 수용에 대한 태도와 탈북자에 대한 친근감 태도 간에 간극이 존재한다는 것은 두 질문에 대해 응답자들이 다른 대상을 머릿속에 그리고 판단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다시 말해, 탈북자 수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들어올 탈북자, 즉 현재 북에서 살고 있는 북한주민을, 탈북자에 대한 친근감은 현재 남한사회에서 살고 있는 탈북자를 생각하고 답했을 수 있다. 만약 이러한 가정이 맞다면, 탈북자들의 유입 또는 남북통일로 남·북한 사람들의 접촉이 증가할 경우, 통일독일에서 발생했던 서독인들과 동독인들 간의 적대적 감정과 그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한국사회에서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 없다. 이는 통계수치를 과대 해석하는 것일 수도 있으나 통일독일의 사례를 고려할 때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될 부분이다.

## 2) 탈북자에 대한 개인태도 결정요인

탈북자에 대한 친근감의 정도는 1부터 4까지 척도로 측정되었고, 탈북자 수용에 대한

15) 한 연구에서는 남한사람들이 탈북자보다 미국인과 일본인을 더 가깝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명진 외 2010).

16) 1983년에 이뤄진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중 서독인의 26%만이 동독사람들에 대해 연민의 감정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 60세 이상의 사람들이 4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16세에서 29세 사이의 젊은 층은 15%였다. 더욱이 서독사람들은 동독사람들보다는 네덜란드,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 사람들에 대해 더 연민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Chung and Magle 1992, 858).

입장은 1부터 3까지의 척도로 측정되었다. 둘 다 점수가 높을수록 탈북자에 대한 친근감이 높고 탈북자 수용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코딩되었다. 종속변수가 연속적이지 않고 개인의 선호를 나타내기 때문에 순서-프로빗 모델(Ordered Probit Model)을 사용해 분석했다. 독립변수는 앞서 설명했듯이 경제적·문화적·정치적·인구통계학적 요인으로 나누었고 각 요인에 속하는 변수들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우선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모든 변수들을 함께 포함시킨 상황에서 어떠한 변수들이 종속변수에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는 <표 2>와 <표 3>에 정리했다.

우선, 탈북자에 대한 친근감과 관련해 경제적 요인들에 속하는 어떤 변수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적 요인과 정치적 요인에 속하는 민족정체성과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민족정체성이 높을수록 그리고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탈북자에 대한 친근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통계학적 요인의 경우는 성별, 즉 여성일수록 탈북자에 대한 친근감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변수들을 함께 넣어 통계분석을 실시한 경우에도 민족정체성,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 여성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탈북자 수용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살펴보면, 경제적 요인에 속하는 변수들만을 측정했을 경우에 교육, 비경제활동 집단, 경제상황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높고 경제상황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가 높을수록 탈북자 수용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적 요소와 정치적 요소의 경우 탈북자에 대한 친근감과 마찬가지로 민족정체성과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관련해서는 성별만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모든 변수들을 포함시켰을 경우에는 경제적 요인에 속하는 변수들의 유의미성은 모두 사라졌으며, 민족정체성,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 성별, 세대 변수만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종합해볼 때, 이민자에 대한 태도 연구와 비슷하게 탈북자에 대한 친근감이나 탈북자 수용에 대한 태도에 있어 경제적 요인의 영향력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경제적 요인의 영향력이 강하게 나타난 서구의 많은 연구들과는 상반되는 결과다. 그러나 경제적 요인들의 영향력만을 측정했을 때 통계적 유의미성이 존재했다는 점에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표 2〉 탈북자에 대한 친근감 결정요인(ordered probit)

종속변수: 탈북자에 대한 친근감(1-4)

	1	2	3	4	5
경제적 요인					
소득	-.0042 (.0236)				.0003 (.0239)
교육	-.0157 (.0412)				.0052 (.0533)
자영업	.1643 (.0840)				.1505 (.0855)
비경제활동	-.1304 (.0768)				-.0574 (.0837)
주관적인 경제 만족	.0841 (.0545)				-.0142 (.0576)
문화적 요인					
민족정체성		.1590*** (.0464)			.1325*** (.0499)
정치적 요인					
정치적 성향			.0591 (.0426)		.0521817 (.0438871)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			.1920*** (.0537)		.1977*** (.0557)
인구통계학적 요인					
여성				-.2741*** (.0661)	-.2106*** (.0743)
연령				.0035 (.0054)	.0031 (.0061)
세대(40 이상)				.1003 (.1161)	.0941 (.1176)
결혼				-.0573 (.0881)	-.0697 (.0914)
종교				.0381 (.0685)	.0165 (.0690)
도시				-.0385 (.0658)	-.0401 (.0672)
No. of observations	1179	1196	1193	1182	1161
Log likelihood	1130.3135	-1151.5914	-1145.3247	-1123.6134	-1082.1286
Pseudo-R <sup>2</sup>	0.0062	0.0060	0.0090	0.0104	0.0264

Each cell reports the coefficient and (in parenthesis) its robust standard error.

\*\* significant at 5% \*\*\* significant at 1%

〈표 3〉 탈북자 수용에 대한 결정요인(ordered probit)

종속변수: 탈북자 수용(1-3)

	1	2	3	4	5
<b>경제적 요인</b>					
소득	-.0274 (.0242)				-.0271 (.0249)
교육	.0968** (.0460)				.1039 (.0558)
자영업	.0856 (.0903)				.0615 (.0915)
비경제활동인구	-.1696** (.0769)				-.0883 (.0846)
주관적 경제 만족	.1122** (.0549)				-.0054 (.0587)
<b>문화적 요인</b>					
민족정체성		.1545*** (.0456)			.1427*** (.0492)
<b>정치적 요인</b>					
정치적 성향			.0595 (.0426)		.0307 (.0449)
정부 대북 정책에 대한 평가			.2611*** (.0540)		.2570*** (.0570)
<b>인구학적 요인</b>					
여성				-.3129*** (.0687)	-.2553*** (.0767)
연령				-.0103 (.0056)	-.0090 (.0063)
세대(40 이상)				.2221 (.1203)	.2442** (.1239)
결혼				.1496 (.0926)	.1410 (.0975)
종교				-.0260 (.0710)	-.0188 (.0725)
도시				-.0558 (.0679)	-.0576 (.0689)
No. of observations	1182	1199	1196	1185	1164
Log likelihood	-1114.8487	-1131.6458	-1118.656	-1109.9737	-1069.5164
Pseudo-	0.0084	0.0054	0.0142	0.0119	0.0337

Each cell reports the coefficient and (in parenthesis) its robust standard error.

\*\* significant at 5% \*\*\* significant at 1%



교육 변수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탈북자 수용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결과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이민자 수용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보이는 서구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경제상황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는 서구와 마찬가지로 경제상황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탈북자 수용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sup>17)</sup> 그러나 국내 이민자 수용과 관련해서는 경제상황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장승진 2010).

한편, 가정주부와 학생, 실업자를 포함하는 비경제활동에 속하는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보다 탈북자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업의 유무가 탈북자에 대한 태도차이를 결정하는 요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단, 비경제활동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을 가정주부, 학생, 실업자로 구분할 경우에는 시트린 외(Citrin et al. 1997)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다.<sup>18)</sup>

이렇듯 경제적 변수들의 영향력이 서구와 달리,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아직까지 노동시장에서 남한사람들이 탈북자들과 경쟁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탈북자 수가 이민자 수의 2% 정도밖에 안 되고, 많은 탈북자들이 이민자들과 마찬가지로 하위직중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이해관계로 탈북자들과 남한사람들 간에 갈등이 발생할 여지는 낮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탈북자의 자격 및 경력인정 문제 등과 같이 실질적 문제와 연결될 경우에는 탈북자에 대한 호의적 또는 동정적 감정이 사라진다(김영수 1998)는 연구결과도 있듯이, 탈북자들을 위한 특혜적 정책들은 비슷한 위치에 있는 이민자들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한사람들의 이익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직업의 유무가 탈북자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통계분석결과가 보여주듯이 실업률 증가와 일자리 부족 현상이 가속화될 경우, 탈북자에 대한 남한사람들의 태도는 같은 민족이라는 동질감보다는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탈북자 정책은 탈북자뿐만 아니라 이민자와 남한사람 등

17) 미국의 경우에 국가경제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가 이민자 수용에 대한 선호를 결정짓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Citrin et al. 1997), 장승진의 연구에서는 국가경제보다는 가계경제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가 이민자에 대한 반감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장승진 2010).

18) 단, 신뢰수준 90%에서 가정주부일수록 탈북자 수용에 대해 부정적 태도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주부의 대다수가 여성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여성 가정주부일 경우에 탈북자에 대해 가장 부정적 태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의 요구와 이해 또한 고려한 속에서 총체적으로 수립될 필요가 있다.

경제적 요인들과 달리, 문화적·정치적·인구통계학적 요인인 민족정체성,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평가, 그리고 성별 변수는 다른 변수들을 통제했을 때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자에 대한 개인태도 연구와 비교할 때, 문화적 요인인 민족정체성 변수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갖는다. 다시 말해, 민족정체성이 높을수록 이민자 수용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 반면, 탈북자 수용과 탈북자에 대한 친근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남한사람들이 이민자와 탈북자를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민족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동시에 이러한 결과는 남한사람들이 민족에 대한 강한 동질감과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배타성을 갖고 있다는 이민자 연구결과(송유진 2008; 이명진 외 2010, 장승진 2010)를 간접적으로 지지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사회 내 소수집단이 탈북자만이 아니며,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에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탈북자 문제를 민족문제로만 접근할 경우 이민자에 대한 한국사회의 배타성이 증가되고 이민자들의 한국사회 부적응이 커지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다양한 배경과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한국사회에 공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탈북자 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 민족적 관점만이 아닌 다문화주의적 관점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민족요인이 이민자와 탈북자 간 태도차이를 결정하는 중요요인이나 탈북자 수용과 탈북자에 대한 친근감 태도 간에 간극이 존재한다는 것 또한 사실이기 때문에 탈북자 문제에 대한 다문화주의적 접근은 유의미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한국사회의 맥락을 고려한 속에서 두 접근방법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정치적 변수 중 개인의 정치적 이념은 탈북자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구뿐만 아니라 국내 이민자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와 다른 결과인데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남한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탈북자 관련 문제를 이념보다는 민족적 관점에서 파악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분단국가라는 남한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개인들의 인식과 판단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한다. 이민자 집단과 달리 탈북자 집단은 분단이라는 현실과 동떨어져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분단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가 남한사람들의 탈북자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분단상황을 관리하는 주체가 정부라는 점에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가 탈북자에 대한 개인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난 것은 한국적 맥락에서는 자연스런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가 노무현 정부시기에 측정된 데이터이고 노무현 정부가 '평화번영'이라는 기조하에 남북 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했다는 것을 고려하면, 분석결과는 정부가 남북 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이끌수록 탈북자에 대한 남한사람들의 태도 또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다는 가설을 제시해주고 있다. 그런데 이 가설의 타당성은 노무현 정부와 다른 방향의 대북정책을 추진한 정부 때 남한사람들의 탈북자에 대한 태도와 비교를 통해서만 정확히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제한적인 유의미성만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인구통계학적 변수들 중 성별변수만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상황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이 남성보다 탈북자를 친근하게 느끼지 않고 있으며, 탈북자 수용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탈북자뿐만 아니라 이민자에 대한 여성들의 부정적 태도는 기존 연구들에서도 나타났으나(인태정·김희재 2009; 양계민 2010)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만약 여성들이 통일과정이나 이후에 있어 주체적인 역할을 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결과(현상)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 IV. 맺음말

기존 탈북자 관련 연구가 탈북자 입장에서만 분석되는 경향이 많다는 점과 탈북자 문제 해결이 탈북자의 입장만을 고려해서 이뤄질 수 없다는 점에서 탈북자에 대한 남한사람들의 태도와 이러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우선 남한사람들의 탈북자에 대한 태도경향을 살펴보면, 남한사람들은 탈북자 수용에 대해서는 10명 중 9명이 찬성하는 입장을, 탈북자에 대한 친근감과 관련해서는 10명 중 3~4명 정도가 친근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외국인 이민자와 비교해 탈북자들에게 대한 선호가 좀 더 높은 것으로 나왔다. 그런데 탈북자 수용에 대한 태도와 탈북자에 대한 친근감 태도 간에 간극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전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입국할 북한주민을, 후자에 대해서는 이미 입국한 탈북자를 염두하고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

인다. 이러한 결과는 동포라는 인식이 친근하다는 감정으로 곧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해준다. 다시 말해, 같은 동포임에도 불구하고 60년 이상 서로 다른 체제와 이념 하에서 살아오면서 체화된 경험과 인식, 감정의 차이가 남한사람들과 탈북자들 간에 존재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남한사람들의 탈북자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 경제적 요인은 서구와 달리 아직까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문화적 요인인 민족정체성은 이민자에 대한 태도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변수로 나타났으나 영향력의 방향이 반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민족정체성이 높을수록 이민자에 대해서는 부정적 태도가 증가하는 반면, 탈북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태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치적 요소는 기존연구들과 달리 개인의 정치적 성향은 탈북자에 대한 태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는 다른 변인들을 통제한 상황에서도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남한사람들의 탈북자 수용에 대한 태도와 탈북자에 대한 친근감 태도 간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요인 중 하나가 민족정체성이며, 이 요소가 탈북자와 이민자에 남한사람들의 태도차이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지금 한국사회는 다양한 배경과 문화를 가진 사람들 사이의 사회통합(장승진 2010)과 민족통일 또한 이뤄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탈북자 문제 또는 정책은 민족적 관점과 다문화주의적 관점을 통합한 속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탈북자와 이민자에 대한 남한사람들의 개방성과 포용성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2007년이라는 특정 시점에서 이뤄진 자료만을 사용했기 때문에 탈북자에 대한 태도가 정권의 교체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파악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또한 남한사람들의 탈북자에 대한 태도가 탈북자들이 남한사람들에 대해 갖는 태도와 어떠한 차이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비교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탈북자 연구에 있어 수용자인 남한사람들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과 이들의 개인태도를 대표성 있는 자료를 갖고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투고일 2011년 3월 31일

심사일 2011년 4월 11일

게재확정일 2011년 5월 2일

## 참고문헌

- 강원택. 2005. 『EAI·중앙일보 국가정체성 여론조사』, 연구수행기관: 동아시아연구원, 자료서비스기관: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자료공개년도: 2007년, 자료번호: A-2005-0012.
- 김미령. 2006. “탈북자의 적응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우울성향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7집 1호, 193-217.
- 김영수. 1998. “대학생 및 고등학생들의 탈북자관 조사.” 『전략논총』 10집, 125-155.
- 김현철. 2004. “탈북자에 대한 정부시책: 달라지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제도.” 『북한』 393집, 73-78.
- 김혜숙. 2000. “북한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 감정과 태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6집 2호, 115-134.
- \_\_\_\_\_. 2002. “대학생들이 중요시하는 가치와 북한 사람 및 대북 정책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6집 1호, 35-50.
- 박광득. 2006. “미국 북한인권법에 대한 중국의 대응과 전망: 탈북자 문제를 중심으로.” 『대한정치학회보』 13집 3호, 55-77.
- 박정란·강동완. 2008. “새터민의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개선 방안.” 『직업능력개발연구』 11집 1호, 45-70.
- 박현식. 2006. “사회복지조직간 네트워크 구축의 장애 요인 연구: 탈북자 정착 지원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25집, 203-223.
- 백경민. 2007. “탈북자의 취업에 대한 경제사회학적 연구.” 2007 전기 사회학대회. 6월, 225-243.
- 서울대 통일연구소. 2007. 『통일의식조사, 2007』, 연구수행기관: 서울대 통일연구소, 자료서비스기관: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자료공개년도: 2008년, 자료번호: A1-2007-0002.
- 송유진. 2008. “한국, 대만, 일본의 이민자에 대한 태도.” 『한국인구학』 31권 2호, 1-20.
- 양계민·정진경. 2005. “북한이탈주민과의 접촉이 남한 사람들의 신뢰와 수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1(특집호), 97-115.
- 양계민. 2010. “현실갈등인식과 지각된 경제수준이 이주노동자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주관적 안녕감의 상호작용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4권 1호, 111-128.
- 양승태. 2006. “국가정체성 문제와 정치학 연구: 무엇을, 어떻게.” 『한국정치학회보』 40집 5호, 65-79.
- 오수열·김주삼. 2006. “새터민을 위한 정부와 지역사회의 역할.” 『대한정치학회보』 13집 3호, 237-256.

- 유시은·엄진섭·윤덕룡·전우택. 2008. “북한이탈주민의 소득 수준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통일정책연구』 17집 2호, 117-153.
- 윤옥경. 2009. “중학생의 북한에 대한 지식과 새터민에 대한 고정관념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5집 6호, 820-833.
- 윤여상. 2001. “탈북자 문제에 대한 종합적 분석과 대처방안.” 『시대정신』 16집, 82-110.
- 윤인진. 2000a. “탈북자문제의 실태와 분석 : 탈북과 사회적응의 통합모델.” 『통일논총』 18집, 3-32.
- \_\_\_\_\_. 2000b. “탈북자의 취업 및 직장부적응 상황.” 2000년 후기사회학대회. 12월.
- 이기춘·이기영·이은영·이순형·김대년·박영숙·최연실·민현선·박미영. 2000. “남북한 생활문화의 이질화와 통합: 탈북인의 남한생활 적응실태와 문제.” 『대한가정학회지』 38집 4호, 177-196.
- 이명진·최유정·최선훈. 2010. “다문화사회와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 『조사연구』 11권 1호, 63-85.
- 이수정. 1999. “북한인에 대한 남녀의 편견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4집 1호, 68-79.
- 인태정·김희재. 2009. “국내 이주 외국인에 대한 부산·울산·경남지역 대학생 의식조사.” 『아세아연구』 52권 2호, 184-213.
- 장복희. 2010. “중국에서 UN 인권조약 이행: 탈북자 보호문제를 중심으로.” 『원광법학』 26집 2호, 201-222.
- 장승진. 2010. “다문화주의에 대한 한국인들의 태도.” 『한국정치학회보』 44집 3호, 97-119.
- 장준오. 2007. 『북한이탈주민 연구를 위한 조사, 연구수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자료서비스기관: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자료공개년도: 2007, 자료번호: A1-2006-0012.
- 전우영. 1998. “북한에 대한 고정관념.” 한국 심리학회 연차대회.
- 전우영·이훈구. 1998. “한국 대학생의 북한 및 북한 내 하위집단에 대한 고정관념.” 『통일연구』 2권 1호, 203-217.
- 전우영. 1999. “남·북한 고정관념에 대한 탐색: 성 역할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집 2호, 219-232.
- 전우영·조은경. 2000. “북한에 대한 고정관념과 통일에 대한 거리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4집 1호, 167-184.
- 전우택·윤덕룡·민성길. 2000. “탈북자들과 보호 경찰관들의 인간관계에 대한 분석 : 보호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통일연구』 4집 1호, 21-64.
- 정광호·금민영·금현섭. 2001. “탈북자지원정책의 새로운 이해: 문세정의의 관점에서.” 『한국정책학회보』 19집 1호, 71-100.
- 정기선. 1998. “북한 주민에 대한 사회심리적 태도가 통일열망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학』 32

- 집, 427-448.
- \_\_\_\_\_. 1999. "탈북자에 대한 이미지 연구." 『통일문제연구』 31권, 173-189.
- 조용관. 2004. "탈북자의 남한사회 적응을 통해 본 통일교육의 과제." 『윤리연구』 57집, 217-240.
- 통계청. 2010. "경제활동인구조사: 자영업주 현황"(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2779 검색일: 2010. 12. 1).
- 홍순혜 · 박윤숙 · 원미순. 2003. "신변보호담당관을 통해 본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장애요인과 신변보호담당관의 업무부담: 개인적 요인들의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2: 223-240.
- Bianchini, Katia. 2010. "The Mandate Refugee Program: a Critical Discussion." *International Journal of Refugee Law* 22. No. 3, 367-378.
- Chandler, Charles R. and Yung-mei Tsai. 2001. "Social factors influencing immigration attitudes: an analysis of data from the General Social Survey." *The Social Science Journal* 38, 177-188.
- Ceobanu, Alin M. and Xavier Escandell. 2010. "Comparative Analyses of Public Attitudes Toward Immigrants and Immigration Using Multinational Survey Data: A Review of Theories and Research." *The Annual Review of Sociology* 36, 209-238.
- Chung, Jin Min and John D. Nagle. 1992. "Generational Dynamics and the Politics of German and Korean Unification." *The Western Political Quarterly* 45. No. 4, 851-867.
- Citrin, Jack, Donald P. Green, Christopher Muste and Cara Wong. 1997. "Public Opinion Toward Immigration Reform: The Role of Economic Motivations." *The Journal of Politics* 59. No. 3, 858-881.
- Coenders, Marcel and Peer Scheepers. 2003. "The Effect of Education on Nationalism and Ethnic Exclusionism: An International Comparison." *Political Psychology* 24. No. 2, 313-343.
- De Figueredo, Rui J. P. Jr., and Zachary Elkins 2003. "Are Patriots Bigots? An Inquiry into the Vices of In-Group Pride."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7. No. 1, 171-188.
- Esses, Victoria M, John F. Dovidio, Lynne M. Jackson, and Tamara L. Armstrong. 2001. "The Immigration Dilemma: The Role of Perceived Group Competition, Ethnic Prejudice, and National Identity." *Journal of Social Issues* 57. No. 3, 389-412.
- Espenshade, Thomas J. and Katherine Hempstead. 1996. "Contemporary American Attitudes toward U.S. Immigration."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30, 535-570.

- Facchini, Giovanni and Anna Maria Mayda. 2006. "Individual Attitudes towards Immigrants: Welfare-State Determinants Across Countries." Centre for Research and Analysis of Migration. Discussion Paper Series CDP No. 04/06.
- Goldin, Claudia. 1994. "The Political Economy of Immigration Restriction in the United States, 1890 to 1921." In Claudia Goldin and Gary Libecap, eds. *The Regulated Economy: A Historical Approach to Political Econom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Gorodzeisky, Anastasia and Moshe Semyonov. 2009. "Terms of Exclusion: Public Views towards Admission and Allocation of Rights to Immigrants in European Countries." *Ethnic and Racial Studies* 32. No. 3, 401-423.
- Hainmueller Jens and Michael J. Hiscox. 2007. "Educated Preference: Explaining Attitudes Toward Immigration in Europe." *International Organization* 61, 399-442.
- Mayda, Anna Maria. 2006. "Who Is Against Immigration? A Cross-country Investigation of Individual Attitudes Toward Immigrants."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88. No. 3, 510-530.
- O'Rourke, Kevin H. and Richard Sinnott. 2006. "The Determinants of Individual Attitudes towards Immigration."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22, 838-861.
- Raijman, Rebeca, Eldad Davidov, Peter Schmidt, and Oshrat Hochman. 2008. "What Does a Nation Owe Non-Citizens?: National Attachments, Perception of Threat and Attitudes towards Granting Citizenship Rights in a Comparative Perspective."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arative Sociology* 49. No. 2-3, 195-220.
- Scheve, Kenneth F. and Matthew J. Slaughter. 2001. "Labor Market Competition and Individual Preferences Over Immigration Policy."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83. No. 1, 133-145.
- Semyonov M., R. Raijman, and A. Gorodzeisky. 2008. "Foreigners' Impact on European Societies: Public Views and Perceptions in a Cross-National Comparative Perspective."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arative Sociology* 49, 5-29.
- Simon Rita J. and James P. Lynch. 1999. "A Comparative Assessment of Public Opinion toward Immigrants and Immigration Policie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33. No. 2, 455-467.
- Timmer, Ashley and Jeffrey Williamson. 1998. "Immigration Policy Prior to the 1930s: Labor Markets, Policy Interactions, and Global Backlash."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4. No. 4, 739-771.



## ABSTRACT

## Individual Attitudes toward North Korean Immigrants

Soo Hyun Kwon | Korea University

The aim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attitudes South Korean individuals have toward North Korean immigrants, and how these attitudes are formed using survey data obtained in South Korea. 90% of South Koreans have positive attitudes towards policy supporting the inflow of North Korean immigrants, however, 70% of respondents expressed anti-immigrant feelings toward North Korean immigrants who live in South Korea. Related to the determinants of both attitudes, while economic independent variables were not statistically relevant, cultural and political variables had significant influence. This analysis shows that although South Korean individuals have different attitudes between the theoretical inflow of North Korean immigrants and the feelings toward actual North Korean immigrants, national identity is a significant variable to influence such attitudes. Consequently, the stronger the feeling of national identity, the more positive people's attitudes toward North Korean immigrants are, and the more negative people's attitudes toward foreign immigrants are. Therefore not only national but also multicultural perspectives should be integrated in the design and execution of government policy concerning North Korean immigrants.

**Keywords:** individual attitudes, North Korean immigrants, national identity, government policy for North Korean immigrants